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S the 1 요리학원
여름大 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 스시(초밥) 반 수강생모집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384-1984

제17818호 2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7월 27일 (음력 6월 14일) 금요일

한국 女인질 "도와달라" 절규

美 CBS와 통화…"모두 매우 아프고 처참한 상황"

현지서 3년 의료봉사 임현주씨 추정

▶관련기사 3·4면

한국인 인질 피랍 8일째인 26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한 여성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22명의 남은 인질을 구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2명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 측의 핵심 요구 조건인 탈레반 구금자의 석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질 석방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은 인질의 상태와 관련, "22명은 아직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다양한 접촉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CBS방송은 이날 자신의 이름이 임현주(32)라고 밝힌 한 인질 여성이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빨리 이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씨는 25일 밤 탈레반 사령관의 주선으로 CBS와 약 3분간 한국어와 아프가니스탄 파르시어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현지사정에 정통한 아프간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찬주'라는 이름의 여성인질이 지역 라디오 언론과 통화했다"며 "이 통화에서 그는 '지금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런데 탈레반이 약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여성 인질이 다른 여성 인질 1명도 매우 아픈 상태라고 말했으며 "유엔과 한국정부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석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인질 중 일부가 항의의 뜻으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또 "탈레반이 죄수 8명의 명단이 카불 정부에 건네져 협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으나, 영국의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한국 정부가 몸값을 지불하려고 탈레반과 약속을 잡았으나 탈레반이 겁을 먹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살해된 고(故) 배형규(42) 샘물교회 부목사의 시신은 26일 오후 한국군 동의·다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프간 바그람기지에 도착했다. 군은 배씨의 시신에 대한 운구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카불에서 민항기를 통해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다.

한편 탈레반 무장세력은 한국인 인질 협상 시한을 27일 정오로 연장했다고 탈레반 측 대변인이 26일 AFP 통신에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카불·두바이·뉴델리=연합뉴스

한국 女 인질 통화내용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급적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아프고 건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하루하루를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인질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억류돼 있으며 저는 나머지 여성 17명과 같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따로 억류돼 있습니다. 남녀가 격리돼 있어 남성 인질이 살해됐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 시원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26일, 검게 그을린 어린이들이 나주시 남평읍 지석강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인질들에 의약품·음식 곧 제공

백종천 대통령 특사 오늘 카불 도착

정부는 26일 탈레반 피랍 한국인들의 효과적인 석방 노력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고 인질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배형규 목사가 피살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깊은 애도와 함께 납치단체들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남은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 아프간 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특사를 아프간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있고, 두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한 한·아프간 정상 협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아프간 정부와 포괄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억류돼있는 한국인들에게 음식물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피랍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려고 한다"면서 "납치단체 측과의 접촉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고 납치단체 측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무장단체 측을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피랍자에게 전달될 음식물과 의약품의 공수(空輸)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전달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보정책조정회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인명을 해치기까지 한 만행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납치세력들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즉각 돌려보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피랍된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프간 정부를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우리학원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전남-경남 또 바다 분쟁

경남, 여수해역에 '연구어업수역' 일방 추진

전남도 "경계선 침해 위법 행위…강경 대처"

■전남·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지역

지난해 전남도와 경남도간 극심한 해상 경계분쟁을 빚었던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이 또 다시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전남도의 육성수면 인근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6천ha를 연구·교습어업 해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5년간 수질과 유속 등을 조사하고 종패 살포 등 시범양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해상 관할권자인 전남도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전남도가 인근에 지정해놓은 '육성수면'을 견제할 목적이어서 전남도와 경남도간 조업분쟁이 2라운드로 돌입하게됐다.

지난 2005년 육성수면을 지정 운영해오고 있는 전남도는 '연구·교습어업 해역을 지정할 경우 관할 해역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경남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연구·교습어업 시행을 앞두고 남해군과 협의했지만 해당 해역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현행 수산업법 44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은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해 면허어업과 허가(신고)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남도가 연구·교습어업 해역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으로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빼앗겼다고 판단, 이를 무효화할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성수면은 2005년 2월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수시 금오도 동방 9마일 해상 2천816ha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키조개 치패 채취를 목적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6월 남해와 여수 선적 어선간 조업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올해 4월 여수에 대한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실사를 앞두고 경남지역 어민들이 육성수면에 대한 불만으로 해상 시위를 시도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성수면이 지정된 해역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1999년까지 잠정적으로 획정했던 시·도 경계선과 통영해경·여수해경간 관할 경계선을 근거로 보았을 때 전남 해역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며 "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구·교습어업 해역 지정에 나선 경남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치경기자 unipark@